



한국문화교류 소식

10호 2013년11월15일 발행 발행인 박갑수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121-813 서울시 마포구 삼개로 20 근신빌딩 별관 201호 전화 02-2285-1070 팩스 02-2285-5070
메일 hangyobon@gmail.com 홈페이지 www.ickc-seoul.net

이광규 이사장 영면(永眠)



본회 이광규 이사장님이 지난 10월 23일(수) 12시 36분, 향년 81세로 타계하셨습니다.

고 이광규 이사장님은 인류학과 재외동포 연구의 1세대 학자이자 거목이셨습니다. ‘재외동포의 간디’라는 칭호를 들으실 만큼 재외동포에 각별한 애정을 쏟으셨으며,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오래도록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별세 전까지도 한국어·한국문화 세계화를 위한 본회 활동에 왕성한 의욕을 보이셨습니다. 최근까지 ‘인류학자가 본 재외동포’라는 저서를 집필 중에 계셨을 만큼 학문과 재외동포에 대한 애정을 놓지 않으셨던 학자이자 실천가이셨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4일장으로 치러진 장례식은 연이은 조문객과 근조화환으로 애도의 물결이 넘쳤습니다. 10월 26일(토), 발인 미사 후 용인 가톨릭 묘소에 안장되었습니다.

약력 및 저서

-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이사장
-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 (사)재외동포포럼 이사장
- 동북아평화연대 이사장
- 우리민족서로돕기 공동대표
- 세계한민족포럼 상임공동대표
- 재외한인학회 회장
- 동암문화연구소 소장
- 재미한인월드포럼 이사
- 나의꿈국제재단 고문

[학력]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비엔나대학교 민족학과(인류학 박사)

[저서] 『동북아문화공동체론』 『국제화시대의 재외한인동포』 『신 민족주의의 세기』 『한국 민속학 개설』 『한국문화의 역사인류학』 『Overseas Koreans』 『한국가족의 구조적 분석』 등 60여 편



이광규 선생 영전에

선생님께서 여기 저기 떨어지는 가을 잎처럼 홀연히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울긋불긋 물든 단풍은 그 찬란함으로 사람들의 찬탄(讚嘆)을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 조락(凋落)의 슬픔을 느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생께서는 마치 가을 낙엽처럼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사시고, 하늘나라에 가 평안히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속세에 남아 있는 후생(後生)들은 훌륭한 학자요 지도자, 다정한 동료로 잃은 슬픔에 오열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선생은 해방 후 1세대 학자로, 대표적인 인류학자, 민속학자셨습니다. 일찍이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대학에서 인류학을 전공한 선생께서는 한국 문화인류학의 개척자로 이 분야의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기셨습니다. “한국의 가족구조분석”, “한국가족의 사적연구”, “한국가족의 심리문제” 등이 이러한 저작들입니다. 선생께서는 또한 재외동포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연구한 학자셨습니다. 그리하여 “재일한국인”, “재미한국인”, “재외동포”, “우리에게 전해주란 무엇인가” 등 많은 연구 저서를 내셨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책상에 앉아 연구만 하신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뛰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셨습니다. “세계한민족포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동북아평화연대” 등에서 활동하신 것이 그것이고, 재외동포재단 이사장도 지내셨습니다. 그러니 선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학자라 하겠습니다.

선생님과 저는 오랜 인연을 맺었습니다. 같은 대학을 나와 사범대학이 1975년 관악(冠岳)으로 옮기기 전에는 청량대(淸涼臺)의 4층 연구실에서 조석으로 얼굴을 대하였고, 이때는 민주화운동이 한창이던 때라 최루탄(催淚彈) 가스도 많이 마셨습니다. 관악에 와서는 대학은 달리했으나 제가 “한국어교육 지도자과정”을 만들어 운영할 때, 선생께서는 여러 해 동안 “한국문화” 강의를 맡아 저를 도와 주셨고, 한국어언어문화교육학회도 같이 만들어 한국 언어문화 세계화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선생님께서 창설하고 주도하신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ICKC)에 제가 참여하는 영광을 입기도 하였습니다.

선생께서는 그간 ICKC를 창설하여 한국어와 태권도를 외국 현지학교에 정규과목으로 채택하게 하려는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선 미국 중등학교에 이를 채택하게 하는 Ten Thousand Project에 열과 성을 다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를 보지 못하고 타계하시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누가 말했습니다. 저 세상 갈 때 재벌들은 재산을 다 두고 가는데, 학자들이 지식을 그냥 가지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선생께서는 한동안 몸이 불편하시다가 회복되어 해박한 지식을 다 풀어 놓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의외로 갑자기 타계해서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고 보니 그 한스러움 또한 절절하게 느껴 집니다.

선생님은 비록 유명을 달리 하셨지만, 많은 후배들이 선생님의 유지(遺志)를 받들어 이으려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선생님께서 천국에서 평안히 계시며, 후배들을 지켜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슬픔을 가누지 못하는 가족들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선생님을 추모하며, 명복(冥福)을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2013년 11월

이사장 박갑수 경구(敬具)



추도사

동암문화연구소를 대표하여 깊은 애도를 보냅니다.

우리 모두 이광규 이사장님의 학문적 분야의 공을 기릴 뿐만 아니라 재외한인에 대한 인간적 헌신에 경이를 보냅니다.

이광규 이사장님은 매우 부지런하고 엄격하신 학자이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처음 뵈는 것은 1968년 도쿄와 교토에서 열린 국제 인성학 모임이었습니다. 이후 예일대학의 인간관계분야 연구소로 저를 방문해 주셨으며, 오사카 민족학 박물관에서 열린 '가족과 종교' 국제모임에서도 만났습니다.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은 2003년, 예일대학에서의 동암문화연구소 컨퍼런스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다음해 그분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되셨고 제주 컨퍼런스에서 젊은 이주 한인 전문가 모두를 고쳐 가문의 사당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후 이사장님과 부인께서 일 년 동안 뉴헤븐에 계실 때 동암문화연구소 소장으로도 봉사하셨습니다.

가족과 친족 그리고 재외한인들에 대한 이사장님과 저의 연구 분야에 관심을 공유한 인류학자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분의 업적은 한국 내외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라 생각하며, 이룩해 놓으신 업적들과 함께 평화롭게 영면하시길 바랍니다.

동암문화연구소 이사장 전혜성

※ 아래 영문 원본을 한국어로 축약 번역하였음.

On Behalf of East Rock Institute, we wish to send you our heartfelt condolences. All of us not only admire his significant contribution to scholarly fields but also salute his humane service to many refugees and returned diaspora Koreans from Northeast Asia. We appreciate his contribution to the studies of Koreans abroad and his passion for adopted families as well as diaspora Korean youth.

After long silence, Dr. Kwang Kyu Lee wrote to me this past August saying that he is hearing about my work through many different channels. He asked me to send my books that he does not have and my recent writings. When I asked how his health was. He said that he now feels better and he is trying to write a few books on overseas Koreans. He was very enthusiastic about his research and writing plan. Immediately complied with him. When there was a silence, I wrote to him on September 7th asking him whether or not he received my attachments. I was not sure that there was such a long silence.

I am indeed sorry that he had passed away. He is younger than I and looked healthy so I never suspected such sudden passing.

Dr. Lee was a very diligent and disciplined scholar. He regularly came to ERI office from OMSC and kept his office hour religiously when he was in New Haven for a year.

I have first met him in 1968 at the International Congress of Ethnology held in Tokyo and Kyoto. We shared many Japanese colleagues. After the meetings in Tokyo and Kyoto, he subsequently visited me at Human Relations Area Files at Yale. He also came to see me in Chicago when I was giving a talk at a Korean church. Then met him at international meeting in Osaka, when Family and Religion conference was held at National Museum of Ethnology. What I remember the most is his visit to ERI conference at Yale in 2003 when we began TCK. He was then the OKF chair. He then invited Chris Park, Mu young Lee, Seunghee to Seoul and Cheju. conference.

He was most gracious in Cheju and brought all conference participants of diaspora Korean young professionals to the Koh Family memorial installation. Then Prof. Lee and Mrs. Dr. Lee also came to New Haven a year. and Dr. Lee served as ERI's interim president following his OKF's chairmanship.

Few anthropologist shared topical interests with my area of research as he did, on family and kinship and overseas Koreans, etc. We also had ties to many Japanese and Korean anthropologists colleagues in Japan.

ERI had the honor of having him for a year as our interim president.

We send our sincere condolence to Dr. Mrs. Lee and his beloved family.

May he rest in peace with the understanding that he had accomplished a lot and he will be long remembered by many who reside within and out side of Korea. !

With our warmest greetings.

Hesung Chun Koh

조사

뜻밖의 비보에 슬픈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광규 이사장님은 조국과 우리말을 사랑하셔서 미국에 와 계실 때도 나라와 한국어를 잊지 않으시고 한국어 세계화를 위해 ‘한국어정규과목채택추진회’를 설립하는 데에 앞장 서셨습니다. 귀국하신 후에도 추진회 고문으로 계속 추진회 일을 걱정해 주셨고 이를 위해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를 설립하셔서 한국에서의 활동 또한 도모하셨습니다.

고인의 나라 사랑과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지극한 마음을 미국에 있는 추진회 모든 사람들이 잊지 않고 있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하며 고인의 유덕이 조국과 해외에 사는 후세들에게도 이어져 빛나기를 빕니다.

한국어정규과목추진회 회장 김영덕
이사장 이종훈
사무총장 이선근 외 일동



▲뉴욕한국일보 2013. 10.
재외한인월드포럼 심운섭 회장



▲조선일보 2013.10.24



뉴질랜드 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



황현주
뉴질랜드 한국교육원 교사

뉴질랜드 공립 중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12년 오클랜드에 한국 교육원이 생긴 후의 일입니다.. 2013년 현재 뉴질랜드 한국교육원에 의해 파악된, 한국어 수업을 하고 있는 현지 중, 고등학교는 전 뉴질랜드를 통틀어 고등학교 한 곳, 중학교 여덟 곳 정도입니다, 저는, 그 중 5개의 현지 중학교에서, 각 학교마다 1주일에 하루씩 출강, 주당 26시간의 강의를 하고 있으며, 총 630명의 현지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료의 절반은 한국교육원에서, 나머지 절반 가량은 현지 학교들로부터 지급 받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현지 중학교에 한국어 수업을 개설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한국 교육부 산하 기관인 한국교육원의 이름으로,

수없이 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하고, 겨우 연락이 닿아서 어렵사리 약속을 하고 찾아가면, '올해 학사 일정은 이미 다 정해졌다. 내년에 하자.'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학생 수가 적다.' '매 수업에 우리 교사가 참관할 것이다.' '뉴질랜드 교사 자격증은 있느냐?' '우리 학교에 뭘 해 줄 거냐', 등등... 지난 해 7월, 그렇게 힘겹게 한국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사범대학교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선 한국의 교사자격증을 인정할 수 없다 했습니다. 뉴질랜드 Teacher's Council에선 그 이유를 한국의 사범대학 체계를 이해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2010년 오클랜드대학교(University of Auckland)의 Teacher's College 를 졸업하고 나서야 뉴질랜드의 중등교사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었습니다.

뉴질랜드 현지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각각 교교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거리유지가 필요합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서라도 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학생들과의 관계입니다. 뉴질랜드의 중학교는 2년 과정이고 학생들의 평균 연령대는 만 11세부터 12세까지 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한국어는 성적에도 들어가지 않으며, 배워도 사용할 기회도 없어 보이고, 몰라도 아무 상관없는 언어입니다. 학생들이 재미있다고느

끼게 만드는 것 그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고민한 것이 ‘뭘, 어떻게 가르칠까?’ 입니다. 저는 ‘한국어’의 의미를 넓게 잡기로 했습니다. 어찌면, 이 아이들에게 저는 그들이 만나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한국’ 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의 어깨를 무겁게 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한국문화’를 포함한, ‘한국에 관한 모든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게, 하지만 뭘가는 배워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했습니다. 노래와 율동을 하고, Y-TUBE 등의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을 집중시키고, 단어 게임을 통해 그날 배운 어휘를 암기하도록 했습니다. 그 게임에서 오답을 말하거나, 제 때 대답 못한 학생들은 벌칙을 받습니다. 교실 앞으로 나와 노래를 부르거나, 엉덩이로 이름 쓰기 등. 어떤 아이들은 벌칙 안받으려고, 또 어떤 아이들은 벌칙 받고 싶어서 눈이 반짝거립니다.

때로 현지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알게 될 때도 있습니다. 교실 창 밖에 비가 내리고 있어서 ‘비’라는 단어를 가르쳤습니다. Rain 이라는 뜻이고 ‘bi’라고 읽는다고 했더니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하더군요. ‘그럼 Raining 은 비잉 (bi-ing) 이라

고 하느냐?’ 고. 그 기발한 생각이 저를 즐겁게 했습니다.

사실 저는, 뉴질랜드에 정착한 후부터 내내, 국력이 강한 다른 나라들을 부러워 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Korea’가 어디에 있는지 모를 뿐 아니라 동양인들은 모두 ‘중국인’이나 ‘일본인’인 줄 압니다. 이런 상황들을 가까이에서 볼 때마다 저는 참 많이 씩씩했고 또 그 나라 국민들이 부러웠습니다. ‘현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순 없을까?’ ‘그런 날이 오긴 올까?’

그런데 드디어 지금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쁘고 행복한데도 마음 한 켠은 여전히 부족하다 합니다. 더 많은 뉴질랜드 학교들에서 한국어 수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한국말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사랑하는 내 조국 ‘대한민국’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실을 나가는 내 등 뒤로, 뉴질랜드 현지 학생들의 한국어 사말이 오늘도, 들립니다.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소식

■ 신입 이사장에 박갑수 이사장 선출

고 이광규 이사장의 별세로 인해 공석이 된 이사장 후임으로 본회 박갑수 연구위원장이 11월 정기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 이로써 박갑수 이사장은 고 이광규 이사장의 잔여 임기인 2015년 9월 1일까지 이사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그간 공동대표를 맡았던 김흥기 대표는 고문으로 추대되었고 공석이 된 연구위원장은 신입 이사장이 선임할 예정이다.

■ 미주태권도교육재단과의 만남

10월 29일(화), 한국을 방문한 미주태권도교육재단(이하 USTEF, 이사장 김경원)은 박갑수 이사장, 김길남 대표등 본회 관계자와 만나 미국 현지학교에 태권도 학급 개설 및 발전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현재 미국 250개 교에서 정규 체육과목으로 태권도를 채택해서 가르치고 있으며 USTEF는 이들을 대상으로 매년 태권도 대회를 개최하고 뉴욕 타임 스퀘어에서 시범 공연을 펼치고 있다. 경기와 무술 차원의 태권도에서 벗어나 예절, 인성교육, 자신감 기르기 등 태권도의 교육적 가치를 통한 '태권도 세계화'의 공동 목표를 확인한 두 단체는 태권도와 한국어의 접목, 태권도 현장 마련, 유능한 태권도 교육자 양성 등의 논의를 통해 상호협력을 더욱 다지기로 하였다.

■ 2013 세계태권도연맹-경희대 태권도 프로그램 지도자 연수

세계태권도연맹(WTF; World Taekwondo Federation)과 경희대학교 국제태권도아카데미(ITA; International Taekwondo Academy)는 지난 2005년부터 국외 태권도 지도자, 선수 및 수련자를 대상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태권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 2013년 세 차례의 프로그램을 기획, 지난 6월, 8월에 이어 마지막 프로그램



으로 11월 11일부터 2주간의 지도자 과정이 개최되었다. 11일(월)에 치러진 개회식에는 세계태권도연맹 총재이자 본회 총재인 조정원 총재와 박의근 재정위원장이 참석하여 30여 개국에서 온 70여명의 국외 태권도 지도자를 환영하였다. 본회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 11월 ICKC 문화탐방 프로그램 진행

ICKC 11월 문화탐방은 12일(화), 과천현대미술관 관람과 자연캠핑장 트래킹으로 이루어졌다. 가을이 아름답게 펼쳐진 숲에 위치한 미술관 탐방은 도심에서의 삶에 행복과 여유를 안겨다 준 시간이 되었다. 특별전인 데이비드 호크니 전, 비디오 빈티지 전, 인도 중국 현대미술전을 관람하고 자연 캠핑장 산길을 걸으며 늦가을 단풍을 만끽하였다.

한국어·태권도 소식

[한국어]



시카고 TAFT 고등학교, 한국어 수업 실시

미국 시카고에 있는 TAFT 고등학교는 지난 봄학기부터 제2외국어 과목으로 희랍어 대신 한국어를 채택하였다. 최근 한류와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반영되어 학교 교장이 주체가 되어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적극적으로 개설한 결과이다.

한국어 담당은 TAFT 고등학교 Judy Shin 교사가 맡고 있다. 이 학교 수학교사인 Judy Shin 씨는 한국계 교사로서, 교장과의 한국어 채택 논의 과정 중, 자격을 갖춘 한국어 교사의 필요를 파악하고 일리노이 주에서 실시하는 한국어교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한국어반 개설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본회는 앞으로 TAFT 고등학교 한국어 수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복 등 학습 자료를 지원해 줄 예정이다.

한국어, 독일 최초로 의무과목 선택되다

독일 비스바덴의 빌헬름 로이쉬너 종합학교(Wilhelm Leuschner Gesamtschule)에서 지난 8월 21일부터 한국어가 의무선택과목(Pflichtfach für Mittags-AG)으로 지정돼 본격적인 한국어 수업이 시작되었다. 이 학교에서는 2010년부터 방과후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수업이 운영되어 오다 작년 7월, 주독한국교육원(원장 홍성대)에서 학교와 협약을 맺으면서 정식과목 채택을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내년에는 6학년 교과목에도 한국어 수업이 포함될 예정이며, 교육원과 학교측은 이 수업을 9학년까지 확대해 나갈 것으로서 주정부 교육부로부터 완전한 '제3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승인'을 이루어 낼 전망이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2013. 10. 04.

[태권도]



LA통합교육구 18개교서 태권도·국악 수업 시작

2013년 가을학기에 LA통합교육구(LAUSD)의 태권도 및 국악 수업이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LA 한국문화원(원장 김영산)에 따르면 태권도 수업은 18개 초중고교에서 진행되며 지난해 보다 3개 학교가 늘었고 전체 수강생 역시 1600명에서 약 2000명이 되었다고 한다. 총 18개교 가운데 7개교가 정규 수업, 2개교가 비포스쿨(before school), 9개교는 애프터스쿨(after school) 프로그램이다. 또한 총 9개교에서 국악 수업이 열려 한국 전통악기의 아름다운 선율도 울려 퍼지고 있으며 페어팩스 교교의 경우는 태권도와 국악 수업이 둘 다 진행되고 있다.

[출처] LA 중앙일보 2013. 09. 24.

후원 회비 보내주실 곳

신한은행 100-027-567461 예금주: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국민은행 068801-04-248856 예금주: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본 단체는 기부금 지정단체이므로 후원금은 법인세 및 소득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